
 금융위원회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시부터	배포 2016.12.14(수)
책 임 자	금융위 서민금융과장 하 주 식(02-2100-2610)	담 당 자	최 치 연 사무관 (02-2100-2611)
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안 창 국(02-2100-2860)		오 형 록 사무관 (02-2100-2864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신 진 창(02-2100-2990)		최 상 아 사무관 (02-2100-2993)
	금융위 은행과장 김 진 홍(02-2100-2950)		이 진 영 사무관 (02-2100-2953)
	금감원 서민·중소기업지원실장 김 수 현 (02-3145-8410)		김 학 문 팀장 (02-3145-8412)

제목 : 서민·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

- ◆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을 연 5.7조원→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, 사잇돌 대출을 보증한도 소진시 1조원 추가 공급
- ◆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은행과 신기보를 중심 축으로 집중 지원 -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및 확장적 보증공급 기조로 전환

1 회의 개요

- '16.12.14(수),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「서민·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」를 개최하여
 -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서민·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

- ◇ 일시/장소 : '16.12.14(수) 10:30,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- ◇ 참석자
 - 금융위원회 위원장(주재), 사무처장, 금융감독원 부원장(은행·중소서민)
 - 기업은행장, 신보 이사장, 기보 이사장, 서민금융진흥원장
 - 은행연합회장, 국민은행장, 신한은행장, 우리은행장, KEB하나은행장, NH농협은행장
- ◇ 주요 논의사항 : 은행권 서민·중소기업금융 지원실적 및 현황, 중소기업 자금동향, 정책서민금융 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

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요지
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살얼음판과 같은 현재 상황에서, 경제의 활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며,
 - 금융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변함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
- [서민금융 지원] 금융당국은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

① 서민 지원자금 공급여력 확대

- 4대 정책서민자금(미소금융, 햇살론, 바퀴드림론, 새희망홀씨) 공급 여력을 금년 5.7조원에서 '17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 추진
-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의 보증한도 소진시 1조원 추가 공급 추진(1조원→2조원)
- 사잇돌 대출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하고, 개인회생·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한 중금리 상품 공급 등도 강구

② 서민금융 전달체계 및 상품 개편

- 서민금융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설 (33개→40여개) 등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을 재구축
- 그간 정책서민자금 효과성 검토를 기반으로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청년·대학생 등에 대한 신상품 개발 추진

③ 한계차주 지원 및 고용·복지와 서민금융간 연계 강화

-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연체를 사전예방하고, 상환능력이 일시 하락한 한계차주에 긴급자금대출 확대 등 지원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+센터간 화상상담, 통합입점 등을 통해 금융지원에 더하여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긴밀히 연결

- **[중소기업 지원]** 정책금융기관의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에 있어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

① 기업은행

- 창업·성장기업에 대해 연 18조원 이상 자금공급
- 소기업,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우대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

② 신·기보

- 확장적 보증공급 기조로 전환
- 보증공급 규모를 작년대비 최소 3조원 이상 늘려 총 66조원 이상 보증공급

③ 산업은행

- 중견기업 및 미래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

④ 기술금융 자금공급 확대 및 여신시스템에 내재화

- 기술금융투자 목표(1조원) 조기달성, '19년까지 3조원 이상 추가 지원
-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“기술만 있으면 대출이 되도록” 기술금융을 여신시스템에 확실히 내재화

⑤ 위탁보증의 차질없는 도입

- 위탁보증 시행을 통해 기존의 ‘보증 따로, 대출 따로’ 방식에서 은행의 보증과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

* 은행권의 준비상황과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장기 보증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 확대
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서민과 중소기업에 위한 충분한 지원과 현장소통에 노력할 예정임을 언급하며,

-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서민과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 역할 수행을 당부

※ 붙임 :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1부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